

## 새로운 선도농가의 업무와 역할을 다해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을 안겨줄 새해 준비와 다짐을 위해 우리들은 오늘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북도 괴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세계 속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녹색혁명, 백색혁명이란 과제로 땀과 눈물로써 기반을 다진 동지들끼리 안부를 물으며 얼굴을 마주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축하를 하기 위해 오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만은 우리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국제질서의 흐름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곧 추진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에 따른 국내대책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날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들을 아무리 어렵게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내일을 다짐하는 선도농가들의 대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답답하고 쫓기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도록 기쁜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성금으로 만들어진 농업기술진흥관 소송 건입니다. 18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했던 우리들의 재산입니다. 지난 5월 두 번째로 대법원 승소확정을 받았습니다. 승소를 위해 애써 주시고 성금까지 내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7여년 동안 농민교육을 통해 다양한 기술교류와 농업생산을 가져 왔고 식량자급을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 강춘성 회장의 대회사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 - 시상식

가져온 녹색혁명, 국민들에게 연중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가소득에 향상에 기여한 백색혁명 등 한국 농민교육에 기여한 업적을 높게 평가받아 지난 8월 30일 한국농업근현대화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 한해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농민·대소비자 교육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현장의 농민은 살맛나고, 농촌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농촌 가꾸기에 앞장서는 선도 농가 육성에 전념하였고, 장수시대를 맞아 퇴직 이후의 삶을 농촌에서 보내고자 하는 도시민 56%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접근 이해·사랑·정착까지 가능하도록 <도시민 웰빙 농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만 소득·교육·의료·복지·문화 등이 도시에 비해 큰 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의 해법을 우리 농업인만으로 풀기 힘듭니다. 결국 소비자며 납세자인 국민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도시 소비자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하고 맛있는 농산물생산과 지킬 가치가 있는 소중한 농촌 가꾸기가 우리 농민들의 책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협회의 많은 회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뛰었습니다.

농업·농촌의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에 희망을 안겨줄 살맛나는 농촌 가꾸기에 본 협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다가 왔습니다만 우리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사회문제는 국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농촌사회 유지와 고령화된 농민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곧 우리 회원들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보람된 삶, 즐거운 일거리, 원만한 인간관계 등 사회에 짐이 되는 삶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삶을 살아가도록 고령사회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지구촌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를 오늘날 세계 제11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반을 닦았습니다.

30~40년 전 선도농가로서 국민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 터전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존립이 어렵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심고 활활 타도록 하는 선도농가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되새겨보고 제2의 농민혁명, 농업혁명, 농촌혁명을 다짐하는 뜻 깊은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006년 12월 13일

제47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강 춘 성**